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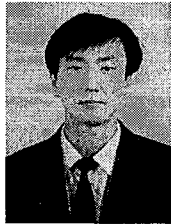
<긴급제언>

『말라카이트 그린』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처방안

The Problem of Using Malachite Gree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글 / 明 澈 秀
(Myung, Cheol Soo)
(주)이엔씨기술연구소 소장.
E-mail : csmjung@ecocean.co.kr



글 / 姜 永 昇
(Kang, Young Seung)
해양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주)한국해양과학기술 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사.
E-mail
kys503@hanmail.net

Recently, the KFDA(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at the Malachite Green was found from imported fishes and eels.

Malachite Green is used for remedy of diseased fishes.

The administration has a plan to intensify monitoring system for distribution of fishes.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improved warning system for public health.

수개월 전, 느닷없이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속에 무척 가깝게, 그러나 암 덩어리만큼이나 부정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과거 한 때, 말라카이트 그린은 획기적인 어병의 치료제로 사랑을 받았는가 하면 옷감의 염색제로 현재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시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 함유 물질은 모기향입니다.

모기향이 녹색을 띠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미국과 유럽 및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서 미국(1991), 유럽(2002), 일본(2003)에서는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최근에 들어 식용어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2001년 미국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보건환경연구원(NIEHS)의 NTP(National Toxicology Program : 국립 독물학 프로그램)는 말라카이트 그린의 살균 효과가 좋아 남용의 우려가 높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물질이 피해를 끼치는 주요 경로는 사람의 물고기 속 잔류물 섭취, 양식장 노동자들에 대한 노출, 양식장에서 유출에 따른 수질 오염이라고 이 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른바 선진국에서조차 양식 어류에서 이 물질이 검출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스코틀랜드와 칠레 등에서 검출된 적이 있고, 지난 6월에는 캐나다에서도 거대 다국적 양식업체인 'Stolt Sea Farm'의 양식 연어에서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으나 이미 3만6천kg이 미국·캐나다와 중국·일본 등 아시아로 팔려 나간 뒤였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화학명이 'Methanaminium,N-[4-[[4-(dimethylamino)phenyl]phenylmethylene]-2,5-cyclohexadien-1-ylidene]-N-methyl-',과 chloride, bromide, oxalate 등 여러 음이온성 물질의 염을 통칭하고 화학식이 $C_{23}H_{25}ClN_2$ 으로써 일반 국민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순 경, 모 방송국에서 중국에서 활어를 좀 더 싱싱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마구 사용하고 이러한 활어들이 우리나라로도 수입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은 캐나다 식품감시청과 중국 언론 등을 통해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의 소독제로 쓰인다는 정보를 통해 수입어류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낯선 용어에 차츰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식약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활어와 냉동 뱀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발간하는 수산기술지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해 엄청난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간하는 수산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잘못된 내용을 싣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간한 '새우양식과 질병관리'라는 제목의 '수산기술지 7호'의 57쪽에는 '새우 양식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생충 구제 및 환경 개선제'의 품명으로, 69쪽에는 '양식산 대하의 주요기생충'의 치료제로 나와 있고, 79쪽에는 '새우 종묘 배양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예방대책'의 화학요법제로 말라카이트 그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말라카이트 그린의 오남용으로 인한 암, 기형, 돌연변이 등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체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관리번호 2003-1-537 (2003.3.12)에 의하면 수산물에 대한 사용허가 혹은 사용금지의 법적규정은 없으나 동물용의약품편람에는 식용어에는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9월 20일에 전국에 걸쳐 활송어에서 의심스러운 수치가 검출되었고, 9월 21일에 충북 향어양식장 1곳과 경북 송어양식장 1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을 분석 중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되었습니다. 7월 이후 국내에서 양식되는 활어에 대한 세 차례의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석 달 뒤인 4차 조사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이 확인돼 정부의 능장 대응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경기도의 보고 및 회신 사실을 숨겨와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일부 양식장의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 의혹 및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을 알린 뒤 대응방법 등을 문의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양식기술지에서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부언론 보도에는 발암 의심물질로 사용금지 품목이라고 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문의했다"고 말했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공문을 이첩하여 문의사항

에 대해 답하도록 했고 국립수산물학원 관계자는 "2004년 7월 29일자로 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도 금지 대상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과거에 납이 들어있는 꽃게 파동과 최근 발생한 기생충 김치 사건 등은 우리나라의 먹을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안심하고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도하는 언론매체는 어김없이 우리정부의 문제점 처리과정과 대처방안을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여 분석하곤 합니다. 그 후, 국민들은 일본과 비교되는 시스템을 통해 늘 허탈하고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의 모든 송어, 향어 양식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출하 전 검사체계를 구축, 문제가 있는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 도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금지를 지도하는 한편 출하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말라카이트 그린은 양식업계에서 탁월한 약효와 저렴한 가격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내수면 양식장 65개소 중 36곳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이 검출되었고 바다 양식장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에서도 사용하여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영세한 양식업계와 가격경쟁에서 항상 중국에 열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국내양식이나 수입 수산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을 교훈삼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감히 공개하고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개선된 시스템이 가동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원고 접수일 2005년 11월 14일>